

古新羅期 土偶에 나타난 복식 연구

권 준 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n the Costume Represented in Clay Figures of Ancient Shilla Dynasty

Jun-Hee Kweo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Lectur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1. 2. 23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stume represented in human clay figures(土偶)of ancient Shilla dynas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

1. Horse-riding clay figures of Gumryoung tomb(金鈴塚)

At first, human-A wears a brimed-triangular hat(弁形帽), a jacket(襦), a checked pants(袴). The brimed-triangular hat(弁形帽) is decorated with bird-feather shape(鳥羽飾). Besides, a jacket(襦) is tied with a waist belt, and the waist belt is connected with a shoulder belt and a squared block(背板) of back. Also round bells(鈴)are decorated 15 in the hat, 4 in connection points of the waist belt and the shoulder belt, and 13 in the squared block of back(背板).

Human-B wears a hairband type hempen hood(帶輪式 巾), a jacket(襦), a pants(袴) with vertical stripes, and something is rounded from right shoulder to left side. It is one of the symbols as a shaman.

2. Other clay figures(土偶)

The hats examined from other clay figures(土偶) are ① Triangular hat(弁形帽), ② Hat decorated with bird-feather shape(鳥羽冠), ③ Brimed hat and ④ Hairband type hempen hood(帶輪式 巾).

Next, six kinds of hair styles examined are ① a topknot, ② a slanted topknot, ③ two topknots on both sides, ④(round) chignon, ⑤ hair tied at the top and plastered down, and the last, ⑥ ponytailed style on both sides.

The costume examined is a jacket(襦) and a pants(袴).

Key Words : Clay figures(土偶), Shilla, Costume.

토우, 신라, 복식

I. 서론

고신라의 복식을 알 수 있는 단서로는 『三國史記』法興王7년(520) 공복제도에 관한 기록과 단편적으로 중국사서의 문헌기록이 존재할 뿐으로 그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각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 통일이전 신라복식에 관한 시각자료로는 먼저 각종 土偶 및 고분 출토의 금속제 유물자료 등을 들 수 있는데 고분 출토 유물자료가 복식사학은 물론 고고미술사학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온 것과 달리 고신라의 토우에 대한 연구는 통일신라 土俑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다.

土偶란 글자 그대로 土製의 인형을 뜻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의 형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동물이나 생활용구, 집 등 모든 것을 그 모습대로 본떠 나타낸 것을 일컫는데 주술적으로 神에 대한 희생의 대응으로 또는 기원이나 승배의 대상으로 쓰여진 경우가 많고 그 다음이 무덤에 넣기 위한 부장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본다.¹⁾ 신라의 토제 유물로도 사람, 동물, 기구나 물건을 본뜬 특이한 형태의 유물이 적지 않게 알려져 왔는데 대체로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고 사냥·고기잡이·性交·악기연주·풍속 등 그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히 보여주는 것으로 土器에 부착된 것, 土偶전체가 토기의 성격을 띤 것,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것 등 세 가지 형태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²⁾ 이 중 토우 전체가 토기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특히 오리나 말 등의 동물형토기인 경우에는 단순한 明器나 장난감이 아닌 祭器의 일종으로 해석³⁾되고 또 토기에 부착된 경우나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일부는 고대 기록 중 祭禮 행사 뒤에 따르는 歌舞奏樂의 모습과 연결시켜 해석⁴⁾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신라 시기의 토제 인형은 토우라 칭하고 피장자에 대한 봉사자의 의미로 순장제도와 관련이 있는 통일신라시기의 토제 인형은 토용이라 칭하여 서로 구별하고 있다. 물론 고신라 시기의 토우는 전체 길이 10cm내외의 아주 작은 크기의 것으로 복식의 일반적인 모습은 생략되어 있으며,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허리선의 묘사 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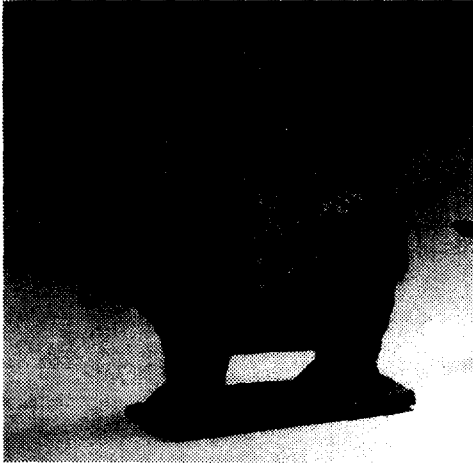
관모의 대략적인 형태 묘사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 많은 벽화자료를 통해 당시의 복식을 재구할 수 있지만 신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각자료가 너무도 부족한 상황에서 비록 생략된 표현이지만 토우를 통해 적지만 당시 복식에 대한 단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본 고에서는 고신라시기 토우라 칭해지는 세가지 경우에서 인물의 모습과 그 복식을 엿볼 수 있는 토우를 모두 포함하여 고찰해 보고자한다. 이는 시각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신라의 복식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더욱이 토우는 3차원적 조형물로 벽화와 같은 평면의 시각자료를 통해 얻을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다. 삼국시대의 복식자료는 가장 먼저 고구려 고분벽화자료를 들 수 있지만 정면 혹은 측면만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弁形 冠帽의 유형, 그리고 각종 머리모양 등을 토우로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식이 비교적 정확히 묘사된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형 토기⁵⁾의 인물복식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 기타 토우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형 토기

6세기초의 고분으로 추정되는 금령총에서는 금관, 금제허리띠, 유리잔, 식리, 옥제 목걸이 등이 함께 출토되어 왕족의 무덤으로 상정되는 고분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두 점의 기마인물형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 큰 것(이하 A)〈그림1〉은 높이 24cm, 길이29.5cm이고 작은 것(이하 B)〈그림2〉은 높이21.6cm, 길이26.3cm이다.

두 점의 토기에 보이는 기마인물에 대해서는 착장한 복식이나 마구의 완비정도로 보아 A가 B보다 신분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의견이 모아지지만 둘이 어떠한 관계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A가 무덤의 주인공이고 B가 그의 하복일 가능성⁶⁾, 또 A가 피장자의 모습일 가능성에는 동의하지만 B가 오른손에 방울을 든 것으로 보아 시종이나 무당일 가능성⁷⁾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각각의 복식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기마인물형 토기1(A)



<그림 2> 기마인물형 토기2(B)

1. 기마인물A

1) 冠帽<그림3,4>

관모는 弁形인데 다만 弁形의 밑변에 뒤끝이 뾰족한 테^{B)}를 두르고 있고 그 테에는 동그란 장식을 9개 붙이고 있다. 그리고 弁形帽의 정수리 좌우에도 동그란 장식이 붙어 있는데 이것과 연결되어 다시 위로 뾰족하게 좌우 하나씩 가는 뿔같은 것이 솟아 있다. 아쉽게도 중간에서 부러져 그 완형을 알 수는 없지만 남아 있는 부분으로부터 조우관식의 한 유형으로 보이고 양쪽에 삼각형의 끝이 부러

져 소실된 것으로 생각된다. 좌우 각 두 줄의 끈이 관모에 부착되어 있는데 두 줄 사이로 귀가 나오도록 끈을 두르고 있다. 그런데 두 줄의 끈이 관모에 부착하는 부위에는 관테와 정수리에 있던 것과 같은 동그란 장식이 있으며, 이것은 턱 부위에서 하나로 합해져 턱 바로 아래에서 좌우의 끈을 묶어 여미고 아래로 늘어 뜨리고 있다. 이러한 양식의 관모 끈은 멀리서 노인우라출토 관모에서도 보이고 이현묘 벽화 한인사절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신라만의 것은 아니고 고대 북방 유라시아 대륙의 민족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물A의 관모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관모 테에 있는 9개, 정수리의 2개, 양쪽 관모 끈에 각2개씩 붙어 있는 동그란 장식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동그란 장식은 다음에 서술하겠지만 인물A의 허리띠와 등에 붙은 背板의 장식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더불어 말장식 중 胸繫에도 장식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보고서⁹⁾에 의하면 마구류 중 하나로 직경 약1촌의 銀小鈴 6개와 함께 출토품 중 성질을 알 수 없는 류로서 金銅小球形品 10개를 들고 있어 인물A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된다. 이 중 금동소구형품은 銅製에 도금을 한 것으로 10개 중 반은 직경 약1촌의 구형이고 나머지 반은 이보다는 납작한 형인데 상하에 작은 구멍을 뚫어 흑 布제의 끈이 통과하였던 흔적이 있고 표면에도 견포를 부착했던 흔적이 있다고 한다. 인물 A의 표현에서 동그란 장식들이 선각에 의한 평면적인 표현이 아니라 임의로 동그란 형을 만들고 이를 각 부분에 부착하여 표현한 것은 그것이 입체적인 형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금령총 출토 유물 중 銀小鈴 및 金銅製의 小球形品이 바로 인물A의 말장식 중 고들개 장식의 일부 혹은 관모 및 복식에 사용된 장식품의 일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복식에의 방울 장식은 고분 출토 유물과 인물 埴輪(はにわ)의 표현, 또 『日本書紀』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古墳時代 인물 하나와를 살펴보면 福島縣いわき市神谷作一号墳 출토 胡座 남자상<그림5>은 전두부만을 덮는 삼각형 冠 주체부와 앞에 鈴이 붙은 삼각 장식이 있는 주변부분의 2부구성으로 된 독특한 冠을 쓰고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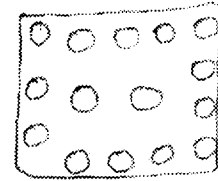
있다. 또한 群馬縣高崎市八幡原町 출토 의자에 胡座하고 앉아 있는 남자상에서도 주변에 곡옥과 큰 丸飾이 있는 山形紋様の 冠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丸飾도 鈴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복식에서의 방울 장식은 群馬縣綿貫觀音山 고분 출토인 胡座 인물<그림6>의 허리에는 방울을 달린 넓은 帶를 매고 上衣의 자락에도 방울 장식이 달려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 고분 출토 유물로는 群馬縣綿貫觀音山 고분에서 하나와에 보이는 방울이 달린 금속제 帶가 실제로 출토되었으며 遠江國濱名郡赤佐村根堅スズミノゴショ고분에서 출토된 金銅透彫鈴附金具는 모자의 차양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도 방울이 부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 하나와에서의 등근 장식이 단순한 작가의 표현기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방울을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日本書紀』의 기록¹⁰⁾에 의하면 당시의 足結, 즉 脚絆에도 방울 장식을 하였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일본에서 방울을 부착한 관모 및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人物하나와가 모두 胡座의 남자상임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胡座모습은 『古事記』中卷 應神天皇條¹¹⁾의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알게 된 황자는 사인(舍人)에게 대역을 시켜서 오상(吳床)에 책상다리하고 앉게 해서 마치 왕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었다”는 기록으로부터 수장 계급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관모 및 복식에 방울을 부착하는 경우 신분이 높은 인물의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도 인물A의 신분도 높은 지위였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고 복식의 방울 장식은 아직까지는 고구려나 백제의 출토 유물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어 일단은 삼국 중에서는 신라만의 독특한 현상이었고 주변국에서 살펴보면 일본과 공통현상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의복

襦袴를 착용하고 있는데 다만 襦의 경우 것이나 여밈선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도련선은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 길이는 엉덩이 선 정도의 길이이다. 그리고



<그림 7>

허리에 帶를 매고 앞 중앙에서 帶의 양끝단이 늘어뜨려져 있다. 특이할 점은 허리의 帶와 어깨끈이 연결되어 있고 이 어깨끈에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등에 네모난 형태의 背板<그림7>이 부착되어 있다는 점과 또한 帶와 어깨끈의 연결점에 각 1개, 背板 장식에는 가장자리에 13개, 가운데에는 2개의 동그란 장식이 있다는 점인데 우리나라의 유물에서는 확인된 바가 전혀 없으며 고고학쪽의 기마인물A에 대한 논의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다만 <그림6>에서 보았듯이 群馬縣綿貫觀音山 고분 출토 胡座 인물은 허리에 방울을 달린 넓은 帶를 매고 있을 뿐만 아니

라 上衣의 도련에도 방울 장식이 달려 있으며 실제로 群馬縣綿貫觀音山 고분에서 하나와에 보이는 방울이 달린 금속제 帶가 출토된 바 있어 인물A의 허리 帶와 연결된 背板의 동그란 장식도 관모의 동그란 장식과 더불어 방울 장식을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음 下衣로는 통이 매우 넓은 袴를 입고, 袴 측면에는 선각으로 무늬를 표현하고 있는데 길이의 1/3선 정도까지는 양옆에 가로선 무늬가 더하여진 비교적 큰 사각형 장식이 있고 그 아래 부분이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왼쪽 다리의 사각형 장식부분에는 무엇인가를 매달고 있어 칼을 차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아래의 격자무늬로부터 이를 囊甲으로 격자무늬는 갑편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왼쪽 다리에 매달려 있는 것이 칼이 맞는가. 그리고 袴에 묘사된 격자무늬를 갑편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먼저 갑옷으로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두가지 점의 의문이 제시된다.

첫째, 갑옷의 입체적인 표현여부이다. 만약 袴를 입고 囊甲을 두른 것이라면 囊甲이 가죽으로 되어 있던 금속제로 되어 있던 囊甲 두께만큼의 표현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바지부리를 보면 격자무늬가 있는 부분과 바지부리가 평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혀 두께표현이 되어 있지 않다. 인물A의 전체 표현에서 두께에 대한 입체적 표현은 관모, 동그란 장식의 표현, 또 어깨의 멜방식 끈 등의 표현을 볼 때 결코 평면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인물A가 타고 있는 말 장식의 표현에서도 안장이나 장니 혹은 고들개 장식 등에서의 확실한 입체표현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그리고 안장이나 장니 내부에서의 장식선은 평면적인 선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인물B 袴와의 관련성이다. 인물B의 袴를 보면 인물A와 같은 격자무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인물A의 격자무늬 위에 있는 사각형 장식(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이 동일하게 보이고 사각형 장식 아래에는 袴의 주름으로 보기에 너무나 일정한 간격의 세로선이 보이고 있으

며 양옆에 일부러 여백을 남긴 듯한 점에서도 인물A와 B는 동일하다. 그런데 인물B의 袴를 볼 때 이것은 袴에 있는 일종의 문양표현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인물A와 B 袴 표현의 유사성과 또한 두 토기에 표현된 인물의 관련성에서도 서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볼 때 인물A의 袴도 인물B의 袴와 같이 선각 표현은 갑옷이 아닌 일반 袴의 문양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격자무늬의 袴는 盤龜臺 岩壁彫刻의 인물표현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왼쪽 다리에 꽂혀 있는 것을 칼로 보는 견해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금령총은 물론 고신과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중 太刀나 小刀류를 살펴봐도 인물A가 다리에 하고 있는 모양의 것은 없다. 그런데 왼쪽 다리에 있는 정체불명의 그것은 둥근 고리같은 것에 꽂혀져 있고 그 아래로 사각형 장식선 이외에 또 다른 세로로 긴 판형의 것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襦 도련선 아래로부터 둥근 고리까지의 세로로 길게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袴의 허리 부위에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갑옷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袴로 보는 입장에서조차 여전히 문제시될 수 있는 점이 왼쪽과 오른쪽 양편에 보이는 격자무늬 수의 차이인데 袴의 격자무늬를 보면 오른쪽과 왼쪽 양편에 표현된 격자의 수가 달라 왼쪽 다리에는 25개, 오른쪽 다리에는 64개의 격자무늬가 이루어져 있다. 인물A가 묘사된 전체 토기의 표현에서 각종 마구류나 다른 부분이 비교적 정확히 묘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될 수 없는 표현이다. 그런데 인물A의 복식 묘사는 아니지만 말의 안장이나 장니에 있는 빗금무늬를 좌우 비교해 보면 역시 좌우의 빗금개수가 다른 점이 발견된다. 이는 토우 제작자의 표현방식에 있어 입체적인 것은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한 반면에 평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袴의 발목 부위에는 몇 개의 횡선과 함께 발목이 조여진 모양을 보이고 있다. 횡선의 표현으로부터 이를 鞞의 신목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발목 부분의 횡선은 바지와 연결부위가 평면적으로 표현

된 것과 달리 신발과 연결된 부위는 입체적으로, 서로 다른 평면상에 존재하였음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 즉 발목의 횡선은 신목에 의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廣袴의 부리를 行膝과 같은 것으로 조여준 결과로 보인다.

3) 신발

끝이 뾰족하게 올라간 화를 신고 그 위에 袴를 덮어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기마인물B

1) 관모

머리에는 상투를 하고 帶輪式 巾을 동여맨 것으로 보이는데 상투라고 보기에는 유달리 길고 가느다랗다. 그리고 巾은 다른 부분의 세부표현이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巾의 묶인 모양이 표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屋이 없는 幘을 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2) 의복

襦, 袴를 입고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사선으로 무엇인가를 매고 있다.

襦는 비록 깃선이나 허리의 帶는 확인할 수 없지만 도련선만은 명확하고 袴는 바지통이 좁은 細袴를 입고 있는데 인물A의 袴설명에서 보았듯이 그 측면에는 사각형장식선 아래에 세로선 장식이 있다. 인물A 袴의 격자무늬와 같이 이것은 일종의 문양으로 보이고 다만 인물B 袴의 경우도 왼쪽과 오른쪽의 선장식 모양이 완전한 대칭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왼쪽에는 사각형 장식 위 襦의 도련 바로 아래에 또 다른 2줄의 횡선이 보이고 있다.

인물B의 의복 표현에서는 무엇보다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사선으로 무엇인가를 매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러한 형식은 일본 고분시대 인물 하나와 중 群馬縣群馬部箕郷町 출토 여자상, 群馬縣太田市塚廻り四号墳 출토 頭椎大刀를 지닌 여성상<그림8> 등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로 사선으로 큰 帶狀의 것을 걸친 모습과 동일하고 出雲國八束郡大庭村大字大草字岩屋後 출토

여자상은 오른쪽 옆구리가 원형으로 되고 왼쪽 옆구리가 열린 형으로 그 방향이 다른 것과는 반대이다. 특히 群馬縣邑樂郡大泉町古海 출토 여자상<그림9>은 오른쪽 어깨에서 사선으로 帶狀의 것을 걸치고 있는데 여기에 끈으로 매단 玉(鈴)飾을 하고 있으며 또한 紐狀의 것을 등 중심에서 교차하여 앞의 양팔에 걸친 형을 한 위에 사선으로 帶狀의 것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에서는 이의 명칭을 둘러싸고 인물B와 같이 한쪽 어깨에서 사선으로 비스듬히 걸친 것을 手襪으로 보는 견해와 群馬縣邑樂郡大泉町古海 출토 여성상처럼 사선으로 帶狀의 것을 한 아래에 紐狀의 것을 등 중심에서 교차하여 앞의 양팔에 걸치고 있는 이러한 교차된 형을 手襪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견해를 취하든 하나와에는 男巫나 巫女로 생각되는 인물이 반드시 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어깨에 사선으로 帶狀의 것을 하거나 혹은 紐狀의 것을 교차시켜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앞에서 인물B는 오른손에 든 방울로 무당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 어깨에 사선으로 한 帶狀의 것도 일본 하나와의 예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그림 9>

3) 신발

인물A와 마찬가지로 화를 신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袴를 신목 위로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 인물A와 달리 신발 끝이 올라가 있지는 않다.

Ⅲ. 기타 토우의 복식

위에서 살펴본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형 토기 이외에 독립토우 및 토기 부착형 토우를 기타 토우로 분류하며 관모, 머리모양, 복식 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관모

1) 弁形 冠帽

전체적인 형태는 弁形을 유지하고 있으나 弁의 끝이 수직으로 향한 원추형(I 유형), 弁의 끝이 앞으로 숙인 형(II 유형), 弁의 끝이 둥글려지고 양 옆으로 늘린 형(III 유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II 유형의 경우에는 다시 弁의 높고 낮음, 숙인 정도에 따라 세가지(이하 II-①, ②, ③)로 세분할 수 있으며 I 과 III 유형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다.

① 원추형 (I 유형)

弁形이면서 특히 弁의 끝이 수직으로 위로 향한 원추형¹²⁾으로 볼 수 있고 이 중에는 머리모양 자체를 뾰족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원추형의 弁形帽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② 앞으로 숙인 형 (II 유형)

전체형은 弁形이면서 弁의 끝이 앞으로 숙인 형태의 것인데 弁의 높고 낮음, 숙인 정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림 10>

<표 1> 弁形帽의 유형별 정면과 측면

	I	II-①	II-②	II-③	III
정면					
측면	정면 모습과 동일				



<그림 11>

II-① : 帽頂이 그렇게 높지 않고 앞에서는 오히려 약간 등글려진 느낌이면서 그 끝이 앞으로 약간 숙인 형이다.¹³⁾

II-② : 帽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 끝만 살짝 앞으로 숙인 형이다.¹⁴⁾ 이 중 <그림10> 자식 내지는 남편의 주검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여인상으로 알려져 있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弁形의 관모는 남성의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신라에서는 여인이 弁形帽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흥미롭다. 그리고 <그림11>의 경우에는 그 끝을 앞으로 약간 숙인 弁形帽의 뒤쪽에 무엇인가를 덧대었는데 갑옷과 연결하여 볼 때 금속제 로 보이는데 이를 숙인 모양으로 성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가죽제, 혹은 백화수피제의 관모에 고분출토 유물에서 보이듯이 금속편을 붙여 장식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II-③ : 帽의 끝이 상당히 앞으로 숙여져 거의 帽身이 반으로 접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경주 황남동 출토 남자상 하나만이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다른 弁形帽의 형태와 비교할 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양 옆이 눌린 형(Ⅲ유형)

고분 출토의 금속제 변형모와 같이 양옆에서는 비교적 넓은 변형의 측면을 이루고 앞에서는 폭이 좁은 이등변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다.¹⁵⁾ 생략된 표현이 많아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으나 측면의 모습에서 변형이라기 보다는 그 끝이 등글려져 오히려 圓頂形으로 보이는 것이 몇 점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同시기 고분 출토 유물 중 금속제 혹은 백화수피제의 변형모와 형태적 유사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를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조우관 <그림12>

머리 위로 크고 굵은 2개의 뿔이 솟아 있어 조우관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¹⁶⁾ 鳥羽飾이 크고 굵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토우에서 보이는 수직적인 모습은 고분출토 유물에서 보이는 조우식이 위를 향해 벌려진 듯한 모습과 구별된다. 이외에 조우관을 쓰고 있는 모습은 토기의 뚜껑에 선각된 그림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림 12>

3) 모테가 있는 帽

帽頂은 변형의 형태를 이루나 모테가 있는 형<그림13>으로 앞에서 서술한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토기 중 인물A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⁷⁾ 帽頂 부분이 뾰족한 삼각형을 이루는 것과 帽頂이 굴러진 느낌의 것¹⁸⁾으로 약간의 변화는 보이지만 帽身을 접어 올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테두리에 덧대어 표현한 것인지 모테가 있는 것이 공통적이다. 다만 여기에서 笠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모테가 있는 帽라는 명칭을 쓴 것은 일반적으로 笠形帽의 차양은 帽身과 수직을 이루고 있는 형으로 인식되어 신라 토우에서 보이듯이 帽身을 접어 올린 듯한 형과는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간의 형태상 차이로 笠과 모테가 있는 帽 들의 명칭을 달리하기는 하였지만 帽身과 그 모테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 계통의 帽로 판단된다.

그런데 신라 고분 출토 유물 중 모자의 차양으로 보여지는 금령총, 천마총 출토 백화수피제 채화관이 있어 주목된다. 천마총 출토 백화수피제채화관¹⁹⁾은 보고서에 의하면 瑞鳥圖채화관과 騎馬人物圖채

화판 2개가 위아래에 겹쳐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모두 백화수피를 두텁게 겹친 扇形板을 서조도 채화판은 6매, 기마인물도 채화판은 8매 연결시키어 가운데가 뚫린 璧形의 圓形板을 만들었고 선형 1매 1매의 연결은 가죽띠 같은 것으로 봉접시켰고 중공 주연과 외연 주위에도 가죽 같은 것으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금령총 백화수피제 채화판은 보고서²⁰⁾에 의하면 얇은 자작나무 껍질을 扇形으로 끊어 두장을 합한 것 10개로 만들어졌다. 자작나무 껍질을 연결시키는데 서로 약 0.2-0.3cm 정도로 겹쳐 좁은 것을 내측으로 방사형으로 퍼서 가는 실로 꿰매고 또 자작나무 껍질을 실로 아래 위 두장을 꿰매었다. 그렇게 해서 외경 약30cm, 폭7cm 정도의 편평한 쉹을 형성하는 것이다. 내측에는 봉합을 위한 실구멍 이외에 다른 바늘 구멍이 등간격으로 있어 布製로 생각되는 피물의 등부에 접속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표면과 리면에 각각 문양을 그렸는데 채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흑색과 주색 두가지 염료를 썼으며 일종의 당초문이다. 줄기와 잎은 검은 색이고 半開라고 생각되는 꽃을 주색을 사용하여 채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즉 위와 같은 채화판을 가죽이나 布製 혹은 동일한 백화수피제의 帽과 연결하여 帽테로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²¹⁾



<그림 13>

그리고 이러한 弁形의 帽에 모테가 있는 형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감신총의 수렵인에게서 확인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착용된 형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데 앞에서 살펴본 福島縣いわき市神谷作一號墳 출토 胡座 남자상<그림5>, 群馬縣綿貫觀音山 고분 출토인 胡座 인물<그림6> 이외에도 千葉縣山武郡芝山町姫塚고분 출토의 남자상, 栃木縣下都賀郡

壬生町安塚 출토의 남자상 등 일본의 하나와에서는 다수 발견되었고 이들이 모두 盛裝차림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일본에서는 귀인의 쓰개였음이 인식된다. 고신라 토우는 모두 표현상 생략된 면이 많아 복식상으로 성장차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帽의 차양으로 판단되는 백화수피제 채화판은 결코 서민적인 관모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귀인계층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형 토기 중 인물A는 확실히 신분이 높았을 것으로 보여 동일 계통의 것으로 판단되는 고신라 토우에서 보이는 모테가 있는 帽형도 신분이 높은 층에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帶輪式 巾

긴 천으로 머리를 동여맨 것과 같은 형²²⁾(그림 14)으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巾을 하고 있는 토우의 성별 문제이다. 帶輪式 巾을 하고 있는 토우 중 하나²³⁾는 확실한 성기 표현으로 남성임을 알 수 있는데 성교중인 남녀상<그림14> 중 아래쪽에 있는 토우는 상식적으로는 여성으로 보이는데



<그림 14>

帶輪式 巾을 하고 있다. 고구려에서는 남자의 巾과는 달리 여자의 巾을 헤어밴드형과 머리전체를 감싸는 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헤어밴드형과 여기에서의 帶輪式 巾은 동일형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형은 고구려 남자의 것은 아니다. 즉 신라에서는 변형모 중 앞으로 숙인 형의 경우 남녀 모두에게 착용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帶輪式 巾도 남녀 모두에게 착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 머리형태

토우에 나타난 머리의 형태는 여섯가지로 요약되는데 아래와 같다.

(1) 하나의 계를 정수리에 올린 일반 상투형<그림15-①>

고조선시기의 魁結²⁴⁾이나 마한인의 魁頭露紒²⁵⁾ 등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의 형성이후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던 머리형태이다.

(2) 하나로 묶어 옆으로 치우치게 드리운 형<그림15-②>

정수리 부위에서 머리를 모아 묶고 이를 오른쪽 옆으로 치우치게 드리운 후 그 끝이 둥글게 처리된 것으로 보아 그것을 반으로 하여 중간에서 다시 묶어 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鬘를 허리선에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자토우임을 알 수 있다.

(3) 두 개의 계를 양쪽으로 올린 雙紒형<그림15-③>

머리 위쪽 양측에 계를 드리웠으며 뚜렷한 성기의 표현으로 남성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나 백제의 자료에서 위와 같은 머리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

본 고분시대 하나와 자료 중의 雙紒는 위와 같이 위로 올린 형(上げみずら)과 아래로 내린 형(下げみずら)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착장 형태로부터 위로 올린 雙紒(上げみずら)는 신분이 낮은 사람, 아래로 내린 雙紒(下げみずら)는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된다. 이는 노동시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는데 신라에서의 雙紒가 일본에서와 같은 신분상의 차이를 드러내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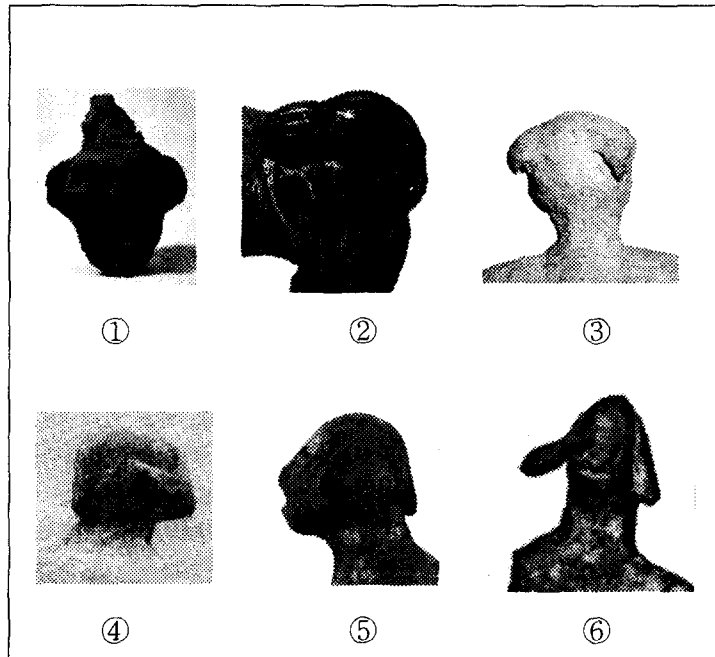
(4) 뒤로 계를 낮게 드리운 쪽진 머리형<그림15-④>

(5) 뒤통수 중앙 위쪽에서 머리를 묶어 후두부에 붙인 형<그림15-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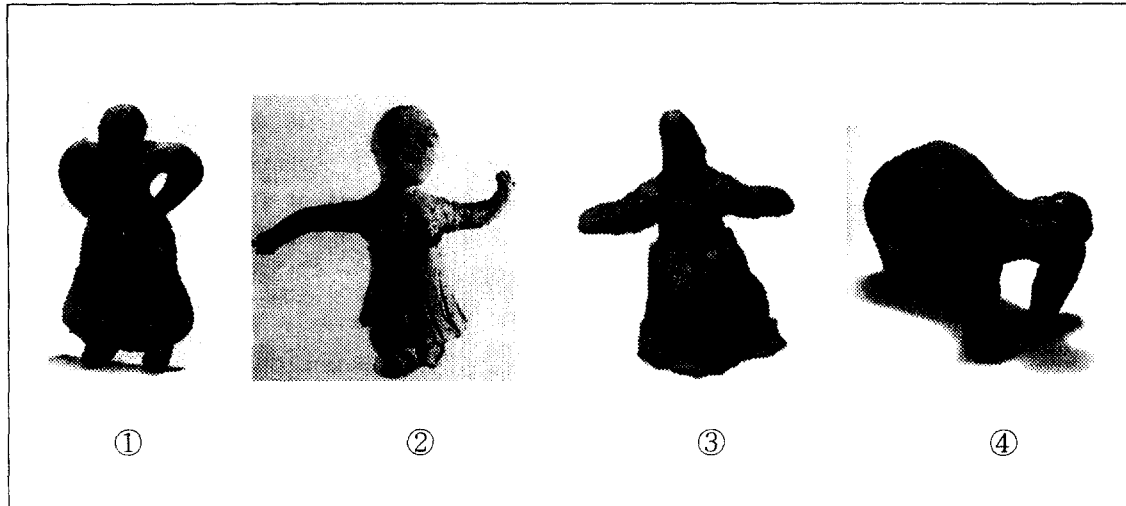
정수리에서 머리를 하나로 묶어 후두부에 붙였는데 그 길이는 목아래로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짧다.

(6) 양쪽으로 머리를 나누어 묶은 형<그림15-⑥>

머리를 양쪽으로 나누어 귀 윗부분에서 묶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림15-⑥>이외에 수습 도중 부러졌는지 한쪽이 끊어져 있지만 원래는 <그림15-⑥>과 마찬가지로 양쪽 대칭형의 머리였다고 판단된다



<그림15> 토우에 나타난 머리 형태



<그림16> 토우에 나타난 각종 裳의 형태

는 토우 2점²⁶⁾이 확인되고 모두 허리에 칼 같은 것을 차고 있어 흔히 무사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 머리를 양쪽으로 나누어 묶은 형을 남자의 머리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초의 예로 매우 흥미롭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일본의 아래로 내린 雙紵(下げみずら)에 속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도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 무사상이 보여지고 있어 흥미롭다. 다만 아래로 내린 雙紵(下げみずら)를 하고 있는 일본의 하니와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으며 冠帽로부터 신분이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신라에서는 물론 칼을 차고 있는 동일한 무사상이지만 기타 신분을 상징할 만한 복식상의 단서를 찾을 수 없어 신분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3. 의복

의복은 일반적으로 上衣의 표현은 없고 袴, 혹은 裳의 下衣표현만이 보인다.

1) 袴

袴의 허리만이 표현된 경우²⁷⁾, 袴의 허리와 袴문 양이 함께 표현된 경우[<표1>Ⅱ-③의 정면 그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袴의 허리표현에서는 등근 띠로만 표현된 경우와 달리 앞 부분에서 약간 늘어진

표현이 있는 경우²⁸⁾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 명확하게 袴의 허리가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토우의 하체표현에서 두 다리가 갈라져 표현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袴를 입은 남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갈라져 표현된 두 다리가 특히 넓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²⁹⁾에는 廣袴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넓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2) 裳

<그림16>과 같은데 이 중 <그림16-①>은 엉덩이 선에서 가로선이 있고 그 아래에 세로선이 규칙적으로 보여 가로선은 襦의 도련선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규칙적인 세로선은 襦 아래 착용한 주름치마 혹은 색동치마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裳의 길이는 발등까지 오는 길이이다.

주목되는 것은 <그림16-②,④>인데 <그림16-④>는 허리선에서 네줄의 가로선이 선각되어 있고 <그림16-②>는 襦표현은 없고 가슴 바로 아래선에서 裳을 표현하고 있다. 즉 이것은 裳 위에 襦를 덮는 일반적인 착장법과 달리 襦 위에 裳을 입어 나타난 허리선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길이도 <그림16-④>는 앞드려 있는 무릎위에 裳 도련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종아리선 정도의 짧은 裳으로 보인다. 토우에서 무릎위에 裳의 도련선이 있는 것은 앞드

린 자세 때문에 더욱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한다. 그리고 裳의 뒤쪽 도련은 발뒤꿈치 바로 위에서 표현되고 있다. 裳착용 모습은 <그림16-③>에서도 확인되지만 세부표현의 생략으로 땅에 끌릴 정도로 긴 길이만을 알 수 있다.

3) 신발

일반적으로 고신라 시기의 소형 토우들은 토기에 직접 부착되었던 경우가 많아 따라서 토기에 부착하기 편하도록 넓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발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발 끝이 위로 올라간 형태가 몇 점의 토우³⁰⁾에서 확인은 되지만 履인지 鞞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외에 履 모양을 볼 수 있는 土履가 몇점 전하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 고신라시기 토우에 나타난 복식을 살펴보고 얻어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형 토기

먼저 인물A를 살펴보면 관모는 弁形帽인데 다만 弁形의 밑변에 뒤끝이 뾰족한 테를 두르고 있고 弁形帽의 정수리 좌우에도 위로 뾰족하게 좌우 하나씩 중간에서 부러져 그 완형을 알 수는 없지만 빨갈은 것이 솟아 있어 조우관식의 한 유형으로 보인다. 그리고 복식은 엉덩이 선 정도 길이의 襦와 격자무늬의 袴를 착용하고 허리에 帶를 매어 앞 중앙에서 帶의 양끝단이 늘어뜨려져 있다. 특이할 점은 허리의 帶와 어깨끈이 연결되어 있고 이 어깨끈에는 등에 네모난 형태의 背板이 부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背板에 대한 문제는 신라내는 물론 주변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유사한 다른 시각자료의 발굴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인물A의 모테에 있는 9개, 帽의 정수리에 2개, 帽의 끈과 帽의 연결점에 좌우 각각 2개, 帶와 어깨끈의 연결점에 각 1개, 背板 장식 가장자리에 13개, 가운데에 2개의 동그란 장식은 일본의 하나와 자료와 금령총에서 함께 출토된 자료로부터 방울 장식

일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다음 인물B는 臺輪式 巾 혹은 屨이 없는 幘을 쓰고 襦와 세로줄 무늬의 袴를 착용하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사선으로 무엇인가를 매고 있다. 인물B는 오른손에 든 방울로 무당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 어깨에 사선으로 한 帶狀의 것도 일본 하나와의 예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기타토우에 나타난 복식

먼저 관모로는 弁形帽, 조우관, 모테가 있는 모, 帶輪式 巾을 착용하였는데 그 중 弁形帽은 가장 많은 토우에서 보이고 전체적인 형태는 弁形을 유지하고 있으나 弁의 끝이 수직으로 향한 원추형(I유형), 弁의 끝이 앞으로 숙인 형(II유형), 弁의 끝이 둥글려지고 양 옆으로 눌린 형(III유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II유형의 경우에는 다시 弁의 높고 낮음, 숙인 정도에 따라 세가지(II-①, ②, ③)로 세분할 수 있으며 변형도 중에서도 특히 I과 III유형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다.

다음 머리형태로는 하나의 계를 정수리에 올린 일반 상투형, 하나로 묶어 옆으로 치우치게 드리운 형, 두 개의 계를 양쪽으로 한 쌍계형, 뒤로 계를 낮게 드리운 쪽진 머리형, 뒤통수 중앙 위쪽에서 머리를 묶어 후두부에 붙인 형, 양쪽으로 머리를 나누어 묶은 형 등이 보인다.

의복은 일반적으로 上衣의 표현은 없고 袴, 혹은 裳의 下衣표현만이 보이는데 袴는 廣袴와 細袴로 나누어 볼 수 있었고, 裳을 입고 그 위에 襦를 입은 것과 襦를 먼저 입고 그 위에 裳을 입은 두가지 착장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고신라시기 토우 복식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먼저 의복의 종류보다는 冠帽류, 머리 모양에서 다양함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토우 제작자의 표현 양식에 의했다기 보다는 당시 冠帽 혹은 머리 모양이 의복 보다 중시되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인물 표현에서도 의복은 襦袴, 襦裳 혹은 袍의 범위에서 머물고

있지만 冠帽류는 더욱 다양한 양상을 띤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고구려 사서의 기록에서 신분에 따른 복식의 구별이 주로 의복이 아닌 관모류의 종류 및 소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신라에서도 동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冠帽에 의한 신분표현은 동일시기 각종 고본에서 출토된 금속제 冠帽 및 帶金具, 그리고 기타 장신구류에서의 신분 표현과 연결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추후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더불어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1) 이난영, 『토우』, 대원사, 1991, 8-9쪽.
- 2) 姜友邦, 「新羅土偶論」, 특별전 『신라토우』, 국립경주박물관, 1997, 117-118쪽.
- 3) 金元龍, 「三國時代 動物形土器 試考」, 『美術資料』 6, 국립중앙박물관, 1962.
- 4) 이난영, 「漢代 雜伎像과 一部 新羅土偶와의 關係」, 『美術資料』 28호, 국립중앙박물관, 1981.
- 5) 이는 土偶 전체가 토기의 성격을 띤 것으로 분류할 수 있어 토우가 아닌 기마인물형 토기라 칭한다.
- 6) 金元龍, 앞논문, 8쪽.
이난영, 앞책, 15쪽.
- 7) 姜友邦, 앞논문, 119쪽.
- 8) 이에 대하여는 廣帶式으로 보고 둥그란 장식은 帶에 玉을 嵌入한 형(黃泣根, 『韓國裝身具美術研究』, 一志社, 1976, 148쪽) 혹은 帽身を 접어올린 것(崔燕京, 「新羅土偶에 나타난 服飾研究」,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2, 6쪽)으로 보기도 하고 변형의 투구로 보는 견해(朴嘉玲, 「古代 韓國 甲冑의 類型」,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95쪽)도 있다.
- 9) 梅原末治,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古蹟調査報告大正十三年度』, 조선총독부, 소화7년, 161쪽, 167쪽.
- 10) 『일본서기』 안강천황즉위전기조
“彌那比等能 阿由臂能古輸孺 於智珥岐等 彌那比等等 豫牟 佐杜須等茂由梅 (宮人の 足結の 小鈴 落ちにきと 宮ひと動む 里人もゆめ)”
- 11) 『고사기』 중권 응신천황조
“詐以舍人爲王 露坐吳床 百官恭敬往來之狀 既如王子之坐所而”
- 12) 『신라토우』 도록(국립경주박물관, 1997년 신라토우 특별전 도록, 이하 도록 도판으로 약칭) 도판중 51, 53, 76, 78, 85중 4, 100, 102, 112 중 세 번째 토우 등이 이에 속한다. 그 중에서 도록 도판47 중 아래 왼쪽의 것은 특히 뾰족한 형이다.
- 13) 도록 도판 104, 112 중 가운데 토우가 이에 속한다.
- 14) 도록 도판 74, 92, 93의 토우가 이에 속한다.
- 15) 도록 도판 8, 35, 53, 61, 62, 85중1, 87, 97, 99, 101 등이 이에 속하는 토우들이다.
- 16) 도록 도판52, 84 중 첫째줄 첫 번째의 토우와 둘째줄 세 번째의 토우가 이에 속한다. 전자의 둘은 그 윗부분이 잘린 상태이다.
- 17) 도록 도판 84 중 세번째줄 네 번째 토우와 도록 참고 도판 9 및 『신라의 토우』(이난영, 교양국사총서22, 1976) 중 그림44에 보이는 토우가 착용하고 있는 예가 보이고 있다.
- 18) 도록 참고 도판9
- 1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천마총』 발굴조사보고서, 1974, 163쪽
- 20) 梅原末治,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제1책, 73-75쪽
- 21) 물론 금령총이나 천마총 출토의 백화수피제 채화판은 전형적인 笄을 차양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2) 도록 도판40의 성교중인 남녀 중 1인과 84 두번째줄 두 번째 토우에서 볼 수 있다.
- 23) 도록도판84 두번째줄 두 번째 토우
- 24) 『史記』 조선열전
- 25) 『漢書』 조선전
- 26) 도록 도판96이나 『신라의 토우』〈그림38〉이 이에 속한다.
- 27) 도록 도판97, 84(셋째줄8번째)의 토우가 이에 속한다.
- 28) 전자는 도록 도판 84(셋째줄8번째)에 해당하고 후자는 도록 도판83, 97에 해당하는데 후자의 경우 과대에 요패가 늘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 29) 도록 도판30, 64의 토우가 이에 속한다. 이 중 도록 도판30은 동일한 기마인물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도록 도판32에서는 다리가 좁게 표현된 것과 비교된다. 즉 廣袴와 細袴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 30) 도록 도판 64, 83 중의 남자 토우에서 확인된다.